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강력한 현신은

의업을 정확시키나니

그대의 정수리 위에 스승을 떠올려라.

만약 당신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돈과 재산에 사로잡혀 있다면, 다음생엔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리는 아귀계에 태어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있다면, 헤어지는 아픔으로 임종 시에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현신은 지속적인 평정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스승의 존명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식은 완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스승을 당신 정수리 위에 계시다고 관상하십시오.

비록 짧은 순간일지언정 망상을 멈출 수 있습니다. 현신은 스승의 자비라는 낯선바늘로 윤회계의 수렁 밖으로 잡아당기는 고리입니다.

깨달음은 이미 마음 속에 내재돼 있습니다만, 그 베일을 벗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강한 현신을 일으키고, 스승의 깨달음의 불성을 당신의 일상적인 마음과 융합시킨다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애로운 스승을 명상하는 것은 다른 어떤 수행보다 심오한 영적 수행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 종단 승인 없이 사찰 토지 처분 안된다

## 대법원 3월 27일 전통사찰 등기예규 제정

- 처분시 종단 정관 등 제출
- 전통사찰은 범무검증 받아야
- 불교 종단 등기 주체로 인정
- "삼보정재 관리 강화 효과"

사찰 재산 처분시 반드시 종단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종단 소속 사찰 재산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대법원은 조계종의 청원에 따라 3월 27일 부동산 등기예규 내에 '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를 제정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이번 등기예규에서는 종단 소속 사찰이 토지를 처분할 때 종단 정관과 종단 대표자의 재직증명, 직인인감 증명 등을 제출토록 했다.

이번 조치로 종단 재직증명 및 직인인감 증명은 반드시 종단 총무부를 통해 발급되기 때문에 주지 스님 등의 독단 의한 사찰 재산의 임의처분이 불가능해지는 법적 장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등기변경은 일반 사회법에 따라 회의록과 회의록 상 대표자 포함 3인의 인감과 대표자

주인등록등본, 사찰정관 등만 있으면 가능했다.

이번 등기예규는 그동안 밀양 표충사 토지매각 등 삼보정재 유실 문제를 겪은 조계종의 관리 강화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전통사찰의 경우 재산 처분은 더욱 까다로워졌다. 전통사찰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무사와 변호사의 검증을 거쳐도록 했고 등기관의 서류검토도 의무화됐다.

또한 새로 도입된 등기예규에서는 개인 사찰이라도 종단 소속 사찰이면 등기변경시 사찰 정관과 대표자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종단 소속 사찰이 아닌 개인 사찰은 기존 등기 처리와 동일하며 전통사찰이 아닌 사찰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황충기 조계종 재무팀장은 "그동안 불교 종단은 임의단체로 포함돼 종단정관 등 서류를 등기에 이용할 수 없었다. 이번 등기예규는 불교 각 종단을 등기 주체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황 팀장은 "등기예규는 하위서류 작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로 표충사 토지 불법매각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방지되는 등 삼보정재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은 이번 등기예규에 맞춰 사찰 표준정관 의무사용 및 실무지침을 배포하고 등기용 재직증명, 인감증명 발급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출가 활성화 입법은 시대 과제”

- 출가활성화 특위
- 4월 3일 첫 회의
- 6월 전 공청회 개최



출가활성화특별위원회는 4월 3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입법화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조계종 중앙종회 193차 임시회에서 구성된 출가활성화특별위원회(위원장 일관)가 4월 3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특위에서는 일관 스님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종회의원 장적 오심 청원 적전 도정 종민 제정 상덕 스님과 교육부장 법인, 포교부장 송묵 스님 등 11명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활동기한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이다.

첫 회의에는 종회의장 항적 스님이 참석해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항적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급격한 출가자 감소 현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지난 종회에 '정소년, 단기, 특수 출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했으나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특위를 구성했다"며 "특수 출가는 몇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다. 먼저 정소년과 단기 출가 부분을 검토해 6월 종회에서 입법화

를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가 활성화에 대한 의원 스님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장적 스님은 "출가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중고등학생부 때부터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심 스님은 "최근 이웃 종교에서도 신학대에 종교인 양성을 위한 등록금과 장학금을 따로 마련하는 등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며 "출가자 감소는 종단적으로 큰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제정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정 스님은 "출가자 감소는 급격한 주거, 생활환경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획일적 한문 교육에 대한 문제점도 적

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출가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는 내부적으로 많이 나왔다. 이제는 출가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법·제도의 정비와 이를 관리할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가활성화특위는 일선 종립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4월 23일 오후 2시 열리는 2차 회의에 능인중학교 교장 이윤성, 박영동 영석교 교부사, 고진호 동국대 입학처장 등을 초청해 연찬회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특위는 청년, 단기 출가에 대한 입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6월 전에 개최해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신종일 기자

## 불기2557년 불자대상 접수 조계종, 19일까지 모집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오는 4월 19일까지 불기2557년(2013년) 불자대상 후보자 접수를 진행한다.

불자대상은 한국불교 발전에 기여한 불

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불법홍포와 한국 불교 위상 제고에 공로가 큰 불자, 또는 불자의 자긍심 고취와 종단 발전 및 홍보에 공로가 크거나 국가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불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은 물론 외국인과 고인(故人) 및 단체도 추천 가능하다.

대상 후보자 추천자격은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각 교구본사 주지 스님

및 사찰 주지 스님, 조계종 등록 포교단체 및 신도단체 등에 있다. 추천 서류와 공적 사항 입증 서류를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 제출하면 된다.

불자대상 시상식은 5월17일 오전 10시 조계사 불족법요식장에서 진행된다. (02)2011-1706 신종일 기자

##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특별 강설 및 '한국의 큰스님 글씨 - 월정사月精寺의 한암漢岩과 탄허呑虛' 특별전시회 개최

초대합니다. 2013년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는 탄허스님(1913년 ~ 1983년)은 한국불교의 고승이자 선지식으로서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삶의 이정표를 제시한 이 시대의 정신적 지도자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인 김홍규옹의 아들로 태어나 1983년에 열반에 든 탄허스님의 생애는 그대로 20세기 한국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기에 탄허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다음과 같이 도올 김용욱선생의 특별 강연과 특별 전시회를 준비하였으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탄허 대종사 탄신 백주년 기념 특별 강설
  - 주 제 : 탄허 스님의 화엄 세계 (20세기 한국 불교의 정맥正脈과 그 고뇌)
  - 강 설 : 도올 김용욱 (우리 시대의 철학자)
  - 일 시 : 2013년 4월 15일(월) 오후 2시 ~ 3시 30분
  - 장 소 :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 한국의 큰스님 글씨 - 월정사月精寺의 한암漢岩과 탄허呑虛 - 특별전시회
  - 개 막 식 : 2013년 4월 15일(월) 오후 4시
  - 장 소 : 국립중앙박물관 2층 서예실
  - 전시기간 : 2013. 4. 16. (화) ~ 6. 15. (일)

불기 2557(2013)년 4월 5일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회주 연암 현해 합장  
문수성지 오대산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 합장

##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안내

문수성지 오대산 월정사와 한암문도회는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학술·출판사업, 홍보사업, 연대사업, 교육사업, 문화사업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사 업 명	일 정	장 소
<b>■ 학술 / 출판사업</b> •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제2차 학술심포지엄 개최 "탄허대종사의 인재양성과 교육이념의 시대정신" •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출판 및 책자 발간 - 탄허대종사 증언집 '방산굴의 무명수' 발간 - 탄허대종사 범어집 '방산굴범어' 증보판 발간 - '되돌아본 100년, 탄허' 단행본 발간 - '탄허대종사 생애와 가르침' 단행본 발간 - 탄허대종사 유묵집 발간 - '탄허대종사의 인재와 교육' 단행본 발간	4. 26. 2. 24. 2. 24. 2. 24. 4. 15. 4. 15. 8. 31.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국제회의장
<b>■ 홍보사업</b> • '탄허대종사의 사상과 생애'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송 • 탄허대종사 100주년 방송 홍보 및 육성법문 영상	5월 중순 1월 - 12월	불교TV, KBS 불교TV
<b>■ 연대사업</b> • 탁남한스님의 '치유·행복·상생' 명상수행학교 운영	5. 3. - 5. 7.	월정사
<b>■ 교육사업</b> • 화엄강좌 개설 및 운영 • 도올 김용욱 선생 초청 특별 강연 • 무비스님 초청 특별 강연	10. 12. - 10. 20. 4. 15. 4. 26.	월정사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b>■ 문화사업</b> •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 "한국의 큰스님 글씨-월정사月精寺의 한암漢岩과 탄허呑虛- 특별전시회"	4. 15. - 6. 16. 7. 10. - 8. 25. 9. 9. - 10. 3. 10. 10. - 11. 24. 12. 10. - 2014. 2. 16.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월정사성보박물관 국립추천박물관
•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 추모다례제 • 탄허대종사 열반 30주기 추모다례제	2. 24. 6. 2.	월정사 월정사
•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선서행양 전국위원회 및 입선작 전시회 •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대할장제	6. 2. 10. 12.	월정사 월정사
•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세계평화와 나눔의 치유음악회	10. 19.	월정사